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86호 【루계 제24864호】 주체104(2015)년 3월 27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황병서동지, 서홍찬동지와 해당 단위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서 년산 1,000t능력의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현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경영활동에 유리하고 어장이 가까운 서해안의 금산포지구에 위치도 정해주시였으며 여러차례에 걸쳐 건설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처음으로 일떠서는 젓갈가공공장과 그 운영을 위한 수산사업소건설은 기본생산건물과 보조생산건물, 합숙, 갱도식저장고, 설비 및 자재창고, 바다물탕크, 부두 및 호안과 잔교, 능금도—취섬, 능금도—곰섬사이 제방정리, 어로공휴계실, 어구창고, 살림집, 종합편의 등을 건설해야 하는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방대한 건설대상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또다시 안겨주신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받아안은 인민군대에서는 설계를 앞세우는 한편 부두와 건축공사를 위한 부지정리를 계획대로 밀고나감으로써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가 일떠서게 될 능금도를 바라보시면서 서해안의 중심어장에 위치한 능금도에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한 수산물가공기지를 일떠세울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건설됨으로써 바다기슭으로부터 능금도, 곰섬을 방조제로 련결하여 수천만㎡의 새 땅을 얻어냈으며 서해리방향으로 방조제를 계속 쌓아나가니 광산의 박토처리는 물론 조국의 자연을 아름답고 풍치좋게 변모시킬수 있게 되였다고, 장군님께서 수십년전에 벌써 오늘을 내다보시고 이런 명당자리를 마련해주신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정형을 료해하시고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의 생산기지들은 물론 종업원들, 어로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대상들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게, 로동당시대를 대표할수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즐겨 먹어온 맛좋은 식료품이며 영양가높은 부식물인 젓갈을 생산하는 젓갈가공공장을 우리 나라 수산물가공기지의 본보기, 표준으로 잘 건설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젓갈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공장을 우리가 처음으로 일떠세우는것으로 하여 기준이나 참고로 될만 한것이 없기때문에 머리를 쓰고 과학기술적타산을 잘하여 기술공정상으로나 건축미학적으로 누구나 탄복할수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설비배치와 생산조직, 경영활동을 합리적으로 할뿐아니라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젓갈가공공장을 건설하며 생산준비와 숙성, 주입과 포장을 비롯한 모든 생산공정들을 무인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건뎅이젓, 조개젓, 새우젓, 멸치젓 등 여러가지 젓갈품들을 맛있게 담그고 우리 식의 젓갈문화를 더욱 발전시키자면 기술자대렬을 잘 꾸리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젓갈생산기술준비와 제품검사에 필요한 기재들도 그쯘히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의 생산용, 생활용전기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능금도에 풍력과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자연에네르기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능금도와 서해리를 련결하는 방조제를 수림화, 원림화하는것을 비롯하여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가 일떠설 지구를 생태환경적으로 흠잡을데가 없이 전변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젓갈가공공장과 수산사업소를 능금도에 일떠세우기로 결심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략도로만 보았던 곳을 현지에서 보니 볼수록 멋있는 자리라고 하시면서 머지않아 일떠서게 될 공장의 이름을 《금산포젓갈가공공장》, 《금산포수산사업소》로 명명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가 일떠서게 되면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젓갈품을 공급해주시려고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할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당에서는 이 대상을 중요하게 보고 지난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건설문제를 토의결정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은 공해가 전혀 없는 해양생태학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시면서 공업적인 방법으로 젓갈가공을 하는 우리 식의 공장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건설되여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맛좋은 젓갈품들을 안겨주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는 당에서 단단히 마음먹은 건설대상이라고, 그래서 인민군대에 맡기였다고,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으로 희한하게 일떠세워 금산포지구를 완전히 일신시키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이라는 성스러운 이름이 붙어있는 인민군대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또 하나 하자고,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를 훌륭히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자고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산포젓갈가공공장과 금산포수산사업소건설을 정해진 날자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끝낼수 있도록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현지에서 몸소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 돌격대인 인민군대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까지 공사를 무조건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과시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에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고 최고사령관동지께 완공의 자랑찬 보고를 드릴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성원들, 도당책임비서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참가자들의 가슴은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참가자들은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력사적인 서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를 보내주시였으며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당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는 불타는 일념을 안고 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많은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주체조선의 기상과 위력을 온 세상에 과시하고 천만군민에게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체육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는 나라의 체육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놓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고 값높은 자욱을 뚜렷이 아로새긴 체육인들은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이 기억하는 체육영웅,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대회참가자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구호의 함성이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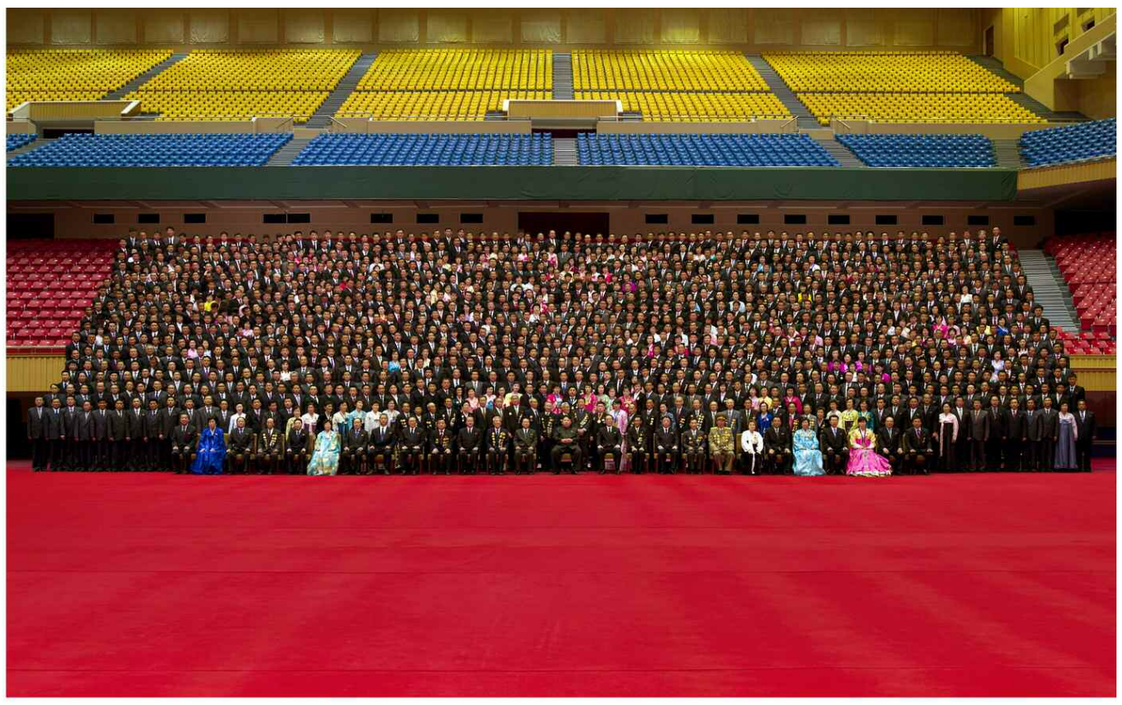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체육강국건설은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중시하는 하나의 전선이고 체육인들은 체육강국건설의 전초선에 서있는 기수, 돌격대라고 하시면서 모든 체육인들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지닌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 식의 위력한 경기전법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전련승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백절불굴의 정신력과 백전백승의 실력을 발휘함으로써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반드시 세계적인 체육강국으로 떠받들어올리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강령적지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에 대한 반향

당의 웅대한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장엄한 대고조불길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력사적인 서한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지금 온 나라 체육인들의 가슴가슴을 세찬 격정으로 설레이게 하고있다. 특히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제일먼저 전달받은 대회참가자들의 흥분과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다. 대회장에서도 숙소에서도 체육인들은 저저마다 불같은 맹세들을 터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강국건설에서 우리 당이 내세운 중요한 목표는 나라의 전문체육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서 패권을 쥐고 나라의 존엄과 기상을 높이 떨치도록 하는것입니다.》

자자구구 새길수록 필승의 신심이 백배천배로 솟구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체육강국건설의 결승선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내달릴 불같은 의지가 체육인들의 심장마다에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다.

기관차체육단 단장 김태성은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은 크나큰 감격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은 지금 우리 체육단일군들과 감독, 선수들의 심금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서한은 우리 체육단사업에서도 끊임없는 비약을 일으킬수 있게 하는 승리의 기치이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밝혀주신 전투적과업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결사관철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이는 유능한 체육강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다. 당면하게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체육의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 사업에 더 큰 힘을 넣겠다. 이 사업에서 과학실이 큰 은을 낼수 있게 설비를 결정적으로 보강하며 이미 자체의 힘으로 마련해놓은 육체훈련기재들에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그 효과성을 더욱 높여나가겠다.

뿐만아니라 청소년체육학교에서 학생선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업이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 선수후비육성사업에서도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겠다. 하여 지난해에 려은희, 김은향 등 우리 체육단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올해에 국제무대들에서 더 많은 금메달들을 쟁취하여 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압록강체육단 녀자축구선수 리예경은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여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고보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체육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며 나라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가 하는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밝혀주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의 결승선을 향하여 힘차게 내달리자!》**라는 구호를 되새길수록 마음이 더욱 커지고 비약의 진군길에 더 큰 박차를 가해나갈 의지가 백배해진다.

우리 녀자축구선수들이 올해에 있게 될 국제경기무대들에서 또다시 승리를 떨치자면 훈련의 어려운 고비들을 수많이 넘어야 한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승리의 구호를 심장에 안고 달리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무비의 힘과 필승불패의 정신력이 용솟음칠것이다. 우리들은 오늘의 훈련장을 당의 사상관철전, 조국수호의 격전장으로 여기고 실전훈련의 용광로속에서 자신들을 사상의지적으로, 육체기술적으로 더욱 억세게 단련함으로써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구현한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의 위력으로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창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평양체육단 기계체조감독 인민체육인 김춘필은 주옥같은 명언들이 빛발치는 력사적인 서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더욱 깊이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이렇게 피력하였다.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에서 우리 체육단의 홍은정선수가 토론을 하였는데 그때 나도 그의 목소리에 마음을 합쳐 경애하는 원수님께 필승의 맹세를 드리였다.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선군시대의 체육인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날의 승리도 새로운 승리로 이어져야 더욱 빛나는 법이다.

나는 선수들과 팀의 실력과 경기승패는 감독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훈련에서 고정격식화, 멋따기를 철저히 배격하고 훈련계획을 현실성있게 과학적으로 세우며 훈련방법을 개선하고 선수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 그들이 그 어떤 경기정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겠다. 특히 이 땅에 철저히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담대한 배짱을 가지고 선수들의 새로운 특기기술을 완성하고 육체적능력을 더욱 높일수 있는 훈련방법과 수단들을 부단히 창안도입하는데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세계를 압도하고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이는 체조강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4.25체육단 레스링책임감독 리명학은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를 마련해주시고 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서한까지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믿음,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것인가 하는 생각만이 차넘친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주체체육발전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력사적인 서한을 받아안고보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10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부어주시던 력사의 그날이 한없는 격정속에 돌이켜진다. 그럴수록 잊을수 없는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앞에서 다진 맹세를 빛나게 실현해갈 승리의 신심도 더해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그 어떤 경기에서도 승리는 확정적이다. 나는 레스링책임감독으로서 선수들이 시상대의 높이이자 조국의 높이라는 숭고한 시대적자각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사상동원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빨찌산식공격전법을 경기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주도권을 틀어쥐고 경기들마다에서 승리를 떨칠수 있도록 하는데 지혜와 힘과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 하여 올해에 있게 되는 국제경기들에서 빛나는 승리를 떨치고 뜻깊은 10월의 대축전장에 긍지높이 들어서겠다.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 접하고보니 필승의 신심이 더욱 끓어오른다고 하면서 **문평제련소체육단 단장 박룡일**은 이렇게 말하였다.

최근 우리 단위에서는 제련소일군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속에 체육단을 일신시키고 교수훈련지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때에 뜻깊은 대회장을 흥분과 격정으로 들끓게 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은 우리 체육단사업에서 비약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터쳐주고있다.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관철해나갈 때 비록 크지 않지만 우리 체육단에서도 얼마든지 국가대표선수들을 키워낼수 있다는 배짱이 더욱 커진다.

비약의 시대인 오늘날 조국의 영예를 승리로 떨치는 국가대표선수들을 키워내는 체육단이 따로 있을수 없다. 지금 우리 체육단에서도 축구와 마라손, 륙상과 같은 종목들에서 전도유망한 선수들이 적지 않게 자라고있다. 우리 일군들부터가 앞장에서서 대중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폭발시키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강령적인 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그 사상과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국가대표선수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겠다.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체육인들이 이렇게 끓고있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애국의 의지가 세차게 빛발치는 력사적인 서한은 선군조선의 혁명적체육인의 영예로운 본분과 조국과 인민의 높은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위투사의 영예를 떨치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선 방방곡곡 체육인들의 앞길을 환히 밝히며 새로운 승리를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오철룡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결의에 넘쳐있는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 참가자들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테네

그리스공화국 대통령

쁘로꼬삐스 빠블로뿔로스각하

나는 그리스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귀국인민에게 번영과 복리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3월 25일 평 양

다 카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대통령

엠디. 아브둘 하미드각하

나는 방글라데슈독립 44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호상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4(2015)년 3월 26일 평 양

몸소 가르쳐주신 물대기방법

오늘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 지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이다.

들끓는 협동벌 그 어디에서나 당의 농업정책관철에서 묘술을 찾아쥐고 올해농사에서 풍요한 결실을 안아오려는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를 느낄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언제 한번 편히 쉬지 못하시고 팔순이 넘은 고령에도 공장과 농촌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수십년전 우리 수령님 이야기가 더욱 뜨거운 격정을 불러온다.

주체67(1978)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느 한 협동농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농장원들도 포전에 나오기 전인 이른새벽 농장을 찾으시여 벼농사에서 변혁을 가져올수 있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포전머리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논벌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논물깊이를 가늠해보시고나서 일군들에게 논에 물을 깊이 대지 말아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누구에게라 없이 하시는 그이의 교시는 계속되였다.

논에 물을 깊이 대면 물온도가 낮아지고 벼가 산소를 잘 빨아들이지 못하며 아지를 적게 친다고, 날씨가 찬 지대의 논일수록 물을 얕게 대는것이 좋다고 일깨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오면서 벼농사에서는 물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될수록 논판에 물을 많이 대여오던 그들이였던것이다. 심지어 벼이삭이 패는 시기에도 물을 깊이 대는것을 례사롭게 여겨오지 않았던가.

자기들의 잘못을 두고 몸둘바를 몰라하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논에 물을 대는것은 포화수상태로 하는것이 제일 좋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논에 물을 포화수상태로 댄다는것은 땅이 두부와 같이 흐들흐들할 정도로 물을 대여 수분이 늘 100% 보장되도록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물을 대는 정도에 따라 질벅질벅하게 또는 잘박잘박하게라는 표현까지 써가시며 생동하게 설명해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교시에 일군들은 눈앞이 확 트이는것만 같은 심정에 휩싸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의 리해를 더해주시기 위해 논에 물을 대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알려주시였다.

한평생 이슬에 젖은 옷자락 마를새 없이 포전길을 걸으시며 농사일로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 이야기가 어찌 그뿐이랴.

우리 수령님께서 탄생 80돐을 맞으시는 뜻깊은 날 어느 한 물길이 완공되여 농사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 친히 붓을 드시여 수리화된 우리 나라 농촌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신 이야기도, 마지막현지지도의 자욱을 농장에 새기신 잊지 못할 사연도 인민의 마음속에는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위대한 스승의 손길이 영원하기에 우리 농업은 이 땅에 자랑찬 전변의 력사를 끝없이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리금분

위대성교양을 첫자리에

철산군 선주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설모임, 이야기모임 등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위원회의 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농장원들에게 인민군부대들을 찾아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하는 생동한 자료들을 가지고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로농통신원 방대삼

우리 당이 밝힌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에 관한 사상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마다 시대를 대표하는 투쟁정신, 전진속도를 창조하며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온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다.

오늘 우리 당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구상을 펼치였다. 여기에는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기수가 되고 오늘의 총진군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한다는 우리 당의 웅지가 깃들어있다.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평양시가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라!》, 이것이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평양시가 당정책을 관철하는데서 기치를 들고나가야 그 모범을 따라 전국이 따라서게 되고 평양시가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게 됩니다.》

지금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에서는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열정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그 어디서나 생산정상화와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날에날마다 면모가 일신되고있는것이 수도 평양의 벅찬 현실이다.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온 나라의 전체 인민이 당의 숭고한 의도대로 강성국가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자면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 중요하다.

본질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는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제일기수가 되여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모든 면에서 전국의 본보기를 창조해나가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이다.

다시말하여 평양시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공격정신, 공격속도에 발맞추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맨 앞장에서 최대의 비약과 혁신, 기적을 이룩하며 온 나라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에로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본보기돌격정신, 본보기돌격속도이다.

기본내용

첫째로,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는 수령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을 핵으로 하는 정신이며 속도이다.

평양은 주체조선의 심장이고 우리 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우리 인민의 마음의 기둥인 금수산태양궁전이 찬연한 빛을 뿌리고 우리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가 자리잡고있으며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영웅적기개가 비껴있는 곳이 바로 수도 평양이다.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는 가장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의도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제일 빨리, 가장 훌륭히 집행해나가는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 속도로 되여야 한다.

둘째로,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는 천리마조선의 비약과 혁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 1950년대의 평양속도와 그 창조자들의 투쟁정신을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켜나가는 정신이며 속도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에서는 1950년대에 7 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 로력으로 2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고 건설속도를 이전에 비해 7.3배로 높이는 기적을 이룩하여 건설의 전성기를 열어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자강도를 찾으시여 강계정신창조의 불씨를 지펴주시고 온 나라에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시였다.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희천속도를 창조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된 시대정신, 시대속도의 빛나는 계승발전이며 온 나라에 대비약, 대혁신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마식령속도》, 조선속도와 함께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투쟁정신이며 속도이다.

셋째로,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는 지식경제시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빨리 창조해나가는 과학기술중시의 정신이며 속도이다.

과학기술이자 전진의 보폭이고 비약의 높이이며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창조이다.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평양시버섯공장과 같이 모든것을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의 전형, 표준이 되도록 창조하고 건설해나가는 과학기술중시의 정신이며 속도이다. 또한 무엇을 하나 구상하고 일떠세워도,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세계적인것으로 되게 하는 최상의 문명창조정신이며 속도이다.

오늘의 평양속도는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서 최단기간내에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비약을 창조해나가는 최상의 돌격속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오늘의 평양속도는 바다를 항행하는 배의 속도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초음속비행기의 속도가 되여야 한다. 새로운 평양속도는 세기를 주름잡으며 폭풍쳐내달리는 기적적인 총공격속도, 온 나라에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오늘의 총진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본보기돌격속도이다.

과업과 방도

무엇보다도 평양시의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과 지혜,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켜야 한다.

일군들은 닭알에도 사상을 새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 우리 당의 사상을 틀어쥐고 대중의 사상의 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데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대중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이 군중의 심금을 울리는 산정치사업으로 되여야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더 빨리 창조할수 있다.

평양시당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일군들은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힘있게 벌려 대중의 힘과 지혜,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킴으로써 수도시민들이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의 적극적인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양시에 있는 대학, 연구기관의 교원, 연구사들과 성, 중앙기관 일군들을 발동하여 평양시경제사업과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수도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시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직접적담당자, 주인이라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오늘의 총공격전의 전렬에서 전국의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함으로써 수도 평양에 당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제일 빨리, 최상의 수준에서 집행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평양시를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제일보루로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평양시 일군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드세게 내밀어 평양시사업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한다.

당정책의 운명은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 모든 사업을 대담하게 설계하고 드세게 내미는것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인 사업기풍, 일본새이며 특히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창조하여야 할 평양시 일군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시안의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작전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평양시안의 모든 일군들은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요구에 맞게 낡은 사고방식과 구태의연한 일본새를 배격하고 모든 사업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는 완강한 실천가가 되여야 한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인민관을 자기의 신조로, 넋으로 간직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다음으로 평양시에서 인민군대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투쟁정신과 기풍, 일당백공격속도를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10년이 아니라 1년에 강산이 변하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당의 결정지시라면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내달리는 인민군군인들의 결사관철의 투쟁모습에서 격동하는 시대의 숨결을 느끼고 세계를 향하여 비약하는 조국의 전진속도를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수도시민들이다.

평양시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과정에 발휘된 인민군대의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침체를 불사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하루빨리 창조해나가야 한다.

또한 온 나라가 평양정신, 평양속도를 따라배워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것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전반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령도방식이다.

전국의 모든 도들과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평양과 숨결도 보폭도 같이하며 오늘의 대고조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시련과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과감히 뚫고나가려는 결사의 의지를 안고 남들이 걸은 백걸음, 천걸음을 한걸음에 뛰여넘으며 전진, 전진, 투쟁또 전진해나가야 한다.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는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거세찬 분출이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웅적기상을 더욱 힘있게 떨치기 위한 장엄한 투쟁이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힘차게 울려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일편단심 충정의 노래 세대와 세대를 이어 메아리쳐간다

인민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를 보고

지난 2월 수도 평양의 인민극장에서 막을 올린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가 한달동안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주체예술사에 수많은 예술공연들과 음악회들이 기록되여있지만 내용과 형식, 감화력과 여운에 있어서 《추억의 노래》처럼 독특하고 충격적인 공연, 음악회는 찾아볼수 없다.

국가적인 명절을 계기로 진행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이나 예술공연, 음악회도 있었고 당과 인민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예술창조활동을 해온 관록있는 오랜 예술재사들의 독창회나 독무회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진행된 《추억의 노래》공연은 주체예술사와 그 발전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국보적인 예술단체들의 옛 중창조, 기악중주조 성원들과 현재 교육 및 문화기관에서 활동하는 어제날의 독창가, 연주가들 그리고 수십년의 예술활동경력을 가지고있는 유명한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참으로 특색있고도 의미깊은 공연이였다. 아마도 우리 음악예술사에 이런 공연은 처음일것이다.

어제날에 유명했던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희한한 공연이 인민극장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은 삽시에 온 평양시를, 전국을 휩쓸었다. 어디서나 화제거리로 되였고 누구나 보고싶어했다.

당의 은정속에 만수대기슭에 최상급의 극장으로 황홀하게 일떠선 인민극장에 들어선 사람들은 상냥하고 친절한 안내원들이 나누어주는 공연종목수첩을 펼치는 순간부터 이름할수 없는 흥분에 사로잡혔다.

《추억의 노래》라는 공연제목은 얼마나 하많은 생각과 회억을 불러일으켜주었던가.

가슴속에 사무치는 어버이정을
뜨거운 추억과 그리움으로 달래며
3년이 흘러간 이 땅에
태양의 그 미소 가득 차넘치는 광명성절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세계가
오늘 이 무대에 꿈같이 전설같이 펼쳐졌습니다
…

절절하게 울리는 설화시와 더불어 공연은 관람자들의 추억의 세계, 흥분의 세계를 주체예술의 전성기가 열려지던 1970년대에로 이끌어갔다.

70, 80나이에 이른 어제날 명가수, 명연주가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다. 비록 머리에는 백발을 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어제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를 받으며 주체예술의 빛나는 전성기를 수놓아가던 청춘시절의 그 열정, 그 실력으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할 때마다 극장안에는 열광적인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지나간 시절에 대한 회고의 무대가 아니였다. 그것은 예술로 펼친 력사의 재현이였다.

인민들이 오늘도 기쁘게 추억하고있는 낯익은 모습들, 귀익은 목소리와 악기의 울림들만이 관람자들에게 감격을 불러일으킨것은 아니였다. 그들이 무대에 올린 한곡한곡의 명곡들마다에 깃든 깊은 사연들이 관람자들로 하여금 잊을수 없는 위대하고도 격동적인 시대를 다시금 열렬히 호흡하게 하여주었다.

이제는 옛날 배우들이 할머니가 되였어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장군님 시대를 회고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말씀, 흐르는 세월도 지울수 없는 장군님 시대의 주옥같은 노래들을 엮어 그리움의 바다, 추억의 바다를 펼쳐주시였다는 설화시의 구절들을 우리 어찌 무심히 들을수 있으랴.

그렇다. 그것은 우리 공화국력사에 번영하는 로동당시대, 사회주의건설의 대전성기로 길이 아로새겨진 위대한 김정일시대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생동한 력사의 재현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이끄시여 이 땅에 륭성번영의 시대를 펼쳐주시던 그 나날들은 공화국의 력사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아름답고 숭고한 추억으로 간직되여있다.

세기적인 창조와 변혁으로 낮과 밤이 흐르고 해가 바뀌던 그 시절에 주체예술은 번영하는 시대의 대변자, 상징과도 같았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며 문학예술의 거장이신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아래 급속한 전변을 안아오던 기적의 년대들마다 그 상징인양 국보적인 예술단체들이 련이어 태여났고 시대의 가수들인 예술재사들이 별처럼 떠올랐으며 시대의 명곡들이 끊임없이 창조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예술이 차지하는 거대한 위력을 누구보다 깊이 통찰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문학예술부문 사업을 대단히 중시하시며 정력적인 지도로 주체예술의 대화원, 대전성기를 펼쳐주시였다.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며 눈부시게 발전하는 주체예술의 힘찬 추동력에 의하여 시대는 비약하였고 시대의 전진과 더불어 우리의 예술은 사회주의문화, 인민의 문명을 새로운 높은 령마루에로 줄기차게 이끌어갔다.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의 구성은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 시대의 빛나는 년대기를 음악으로 엮은 실록과도 같았다. 그 년대기의 상징과도 같은 내 나라의 국보적인 예술단체들과 예술인들은 력사의 진실하고도 생동한 대변자들이였다.

공훈국가합창단의 관현악과 합창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로 시작하는 공연의 서곡에 이어 울리는 《동지애의 노래》,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전사의 길》은 이 땅에 영화혁명의 포성을 울리시고 수십년세월 주체영화예술을 활력있게 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정속에 새겨보게 하는 명곡들이였다. 더우기 이 노래들이 멀고 험한 선군장정의 길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부르고 또 새기신 노래들이여서 관람자들의 추억을 더욱 뜨겁게 하여주었다.

공연의 전반부에는 수많은 영화주제가들을 형상하여 인민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였던 예술인들과 함께 만수대예술단의 첫세대 예술인들이 출연하였다.

만수대예술단의 공훈녀성중창조, 남성4중창조, 공훈녀성기악중주조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800여회에 달하는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이 예술단이 서유럽을 비롯한 55개 나라에서 진행한 공연회수는 무려 770회에 달한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공훈녀성기악중주조가 연주하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충성의 노래**》와 남성4중창조와 공훈녀성중창조가 부르는 《수령님 은덕일세》, 《웃음꽃이 만발했네》,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봄노래》,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공연하던 그때처럼 심혼과 열정을 기울여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출연자들의 모습과 더불어 그들의 예술창조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던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이 무대배경화면에 모셔질 때 관람자들은 자신이 극장에 앉아있는것이 아니라 위대한 1970년대의 한복판에 서있는듯한 흥분으로 온몸이 쩌릿해지였다.

1980년대에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던 보천보전자악단과 왕재산경음악단(당시)의 낯익은 배우들이 련이어 무대에 출연하고 사람들 누구나 즐겨 부르던 멋쟁이 명곡들이 귀에 익은 목소리들을 타고 아름답게 울려퍼지자 인민극장의 객석은 대동강의 푸른 물결처럼 설레이기 시작했다.

전자음악에서 제노라 하던 유럽의 음악가들도 그 신비한 음악세계에 넋을 잃게 하고 퇴폐적인 전자음악이 탁류처럼 흐르는 자본주의 일본땅까지도 뒤흔든 보천보전자악단의 어제날 명가수들이 부르는 《사랑의 봄빛》, 《사랑의 미소》, 《친근한 이름》, 《휘파람》, 《내 나라 제일로 좋아》노래들은 우리 식 전자음악의 독특한 매력과 청신한 향취를 다시한번 진하게 뿜어올리였다.

인민들이 오늘도 기쁘게 추억하고있는 개시음악 《행복넘쳐라 나의 조국이여》로부터 《반갑습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노래로 끝나는 보천보전자악단의 공연종목들도 인상깊었지만 개시음악 《정일봉의 우뢰소리》와 트럼베트독주 《너를 보며 생각하네》로 시작하여 노래 《정일봉의 우뢰소리》, 《사랑하자 나의 조국》으로 깊은 여운을 남긴 왕재산예술단의 생기발랄한 경음악은 또 얼마나 관람자들의 심금을 꽉 틀어잡았던가.

무대에 오르는 하나하나의 예술단체들, 한사람한사람의 예술인들의 이름마저 무심히 외울수 없다.

《독특한 음색과 풍부한 성량, 째인 안삼블, 세련된 연주로 1970년대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 만수대예술단의 공훈녀성중창조, 남성4중창조, 공훈녀성기악중주조》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 식 전자음악의 빛나는 새 력사를 펼쳐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젖게 하는 보천보전자악단의 음악!》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왕재산예술단은 우리 식의 경음악과 현대음악을 세계최상의 수준에로 발전시킬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32년전 1983년 7월 22일 왕재산경음악단으로 세상에 태여났습니다.》

…

왕재산예술단의 음악을 누구나 좋아했고 독창가들과 연주가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있었지만 이 예술단이 진행한 900여회의 국내외공연을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3,000여회에 걸쳐 직접적인 지도를 주시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알고있었던가. 그 력사속에 한 신인가수의 개성적인 목소리를 인민들의 열광적인 호응과 박수갈채를 불러일으키는 기백있고 열정넘친 노래소리로 가꾸어주고 꽃피워주기 위해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과 정이 어려있는줄을 알고있은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였던가.

그처럼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그렇듯 열정적인 지도의 손길아래 주체예술이 비약하고 로동당시대의 번영기가 이 땅에 수놓아졌음을 만사람의 가슴속에 다시금 뜨겁게 새겨주는 뜻깊은 공연이였다.

참으로 주체예술의 전성기는 위대한 김정일시대와 떼여놓고 말할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은 력사의 산아이다.

시대와 예술을 하나의 크나큰 생명체로 결합시켜주시고 이 나라의 예술인들을 시대의 주인공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그 불멸의 업적을 력사는 오늘도 노래하고있다. 절세의 위인의 존함으로 빛나는 력사적인 시대를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영원히 추억하고 칭송할수 있으며 그런 노래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고귀한 재부로 가지고있는 행복과 긍지가 얼마나 크나큰것인가를 《추억의 노래》 공연무대는 가슴벅차게 확증해주었다.

오늘날에도 세계의 여기저기에서는 유명한 가수들이 출연하는 음악회가 빈번히 열리고있다. 그 무대에서 음악회의 주인공들은 온갖 노력을 다하여 련마한 예술적기교를 시위하고 성공의 비결에 대하여 긍지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추억의 노래》공연무대를 통하여 우리가 본 내 조국의 예술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였던가. 비록 고령의 나이들이지만 그처럼 짧은 기간에 그토록 황홀하고 훌륭한 공연무대를 펼칠수 있은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무대에 나섰던 예술인들모두가 한목소리로 말하였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을수 없는 우리의 스승, 우리의 김정일장군님을 노래하고싶어서, 우리 원수님을 받들어갈 새 세대들에게 간절히 하고싶은 당부가 있어서 우리들은 이 무대에 올라섰다.

예술공연 《추억의 노래》가 관람자들에게 준 또 하나의 충격이 바로 이 목소리에 담겨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단 파업을 주시면 열밤을 패서라도 최상의 수준의 작품을 내놓군 하던 어제날의 예술인들, 장군님에 대한 첫 송가를 스스로 지어부르며 당과 조국을 음악으로 충직하게 받들어온 그들에게서 우리 새 세대들이 꼭 본받아야 할 정신이 있다.

온 나라 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별처럼 빛을 뿌리던 그 시절이나 무대에서 내려 평범한 공민으로 살고있는 오늘에나 변함없이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하고 장군님 키워주신 조선의 예술인이라는 자각을 순간도 잊지 않고 사는 참된 인간들의 일편단심을 우리는 그들이 온넋을 다하여 부르는 노래를 통하여 심장에 새기게 된다.

정녕 《추억의 노래》공연무대는 위대한 장군님 시대의 혁명가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들어갈 새 세대 혁명가들을 위해 마련한 간곡한 당부의 노래무대이며 1970년대, 1980년대 세대들과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개척할 세대들이 마음을 합쳐 함께 부르는 《동지애의 노래》 합창무대이다.

세대와 세대가 사상과 신념, 뜻과 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위대한 력사도 한갖 추억으로만 남게 된다. 아무리 훌륭한 명곡도 그 특출한 음악세계를 심장으로 재현할수 있는 참된 새 세대 예술가가 없다면 력사의 이끼에 묻혀버릴수밖에 없다.

우리의 위대한 주체예술의 전통과 력사는 악보나 가사집으로가 아니라 예술가들의 정신과 넋으로 이어지고있다. 이 력사적인 계승의 무대를 우리의 김정은동지께서 마련해주시였다.

하여 영광의 무대, 청춘의 열정이 샘솟는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수령의 성스러운 위업을 위해 사상과 신념으로 부르는 노래는 세월이 가도 로쇠를 모르고 사멸을 모르며 영원히 빛난다고 확신에 넘쳐 말하는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멋들어지고 황홀한 공연무대, 음악회무대들이 많다고 한들 우리의 《추억의 노래》공연무대에 대비조차 할수 있겠는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흉내낼수도 만들어낼수도 없는 주체예술의 심원한 세계를 다시금 과시한 여기에 《추억의 노래》공연이 사람들에게 안겨준 가장 큰 충격이 있는것이다.

《추억의 노래》공연의 막은 내렸어도 그 충격과 여운은 온 나라를 끓게 하고있다. 주체예술의 본태가 살아높뛰고 온몸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타게 하는 공연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킨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이 거세찬 심장의 박동처럼 쿵쿵 뛰는 력사적인 공연이였다.

특히 공연은 문학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20세기 주체문학예술혁명의 장엄한 포성이 강산을 진감하던 그 나날의 예술가들처럼 침체를 불사르고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령도를 받들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1970년대의 창조정신, 창조기풍이 어떤것인가를 말로만 들어오던 새 세대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이번 공연은 다시한번 정신이 번쩍 들게 한 의의있는 격동의 계기로 되였다.

공연을 본 각계층 근로자들과 일군들은 이 뜻깊은 공연무대를 마련해준 당의 뜻을 심장으로 절감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사회주의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은 전세대들처럼 반드시 오늘의 시대를 새로운 승리와 번영, 영광의 시대로 조국청사에 길이 아로새겨야 한다는 력사적인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였다.

《추억의 노래》공연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뜻깊게 장식하게 될 혁명적대경사의 서곡과도 같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앞장에 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마음도 뜻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혁명의 노래높이 만난을 뚫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륭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멀지 않아 력사적인 10월의 대축전장에 자랑찬 승리의 경축공연무대를 펼치게 될것이다.

차 수

전국록색건축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 및 전시회 진행

【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전국록색건축기술부문 과학기술발표 및 전시회가 25일과 26일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에서 진행되였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리과대학, 국가과학원 건축공학분원, 자연에네르기연구소, 도시경영성 중앙난방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하였다.

록색건축기술분과와 자연에네르기기술분과로 나뉘여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록색건축에로 나아가는 세계건축발전추세에 맞게 건축물들을 생태환경에 리롭고 주변환경과 친숙하게 건설하기 위한 과학기술적제안들이 소개되였다.

또한 재생가능한 에네르기자원을 적극 개발하는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보급하고 이 부문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발표회에서는 《소형풍력타빈 복합수지날개의 개발》, 《부푼질석경량판의 제작 및 리용》, 《조종회로없는 소형풍력발전체계에서 부하의 유효전력특성》을 비롯한 록색건축기술발전과 자연에네르기개발리용분야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의의를 가지는 수십건의 론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입선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였다.

전시회에는 여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우리의 힘과 기술로 창안한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자료들이 출품되였다.

대학생과학탐구상 수여모임 진행

【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대학생들에게 대학생과학탐구상이 수여되였다.

전국각지의 대학생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지식의 탑을 높이 쌓는 나날에 학생과학연구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대학생과학탐구상 수여모임이 26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청년동맹일군들, 대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지난 기간 학과학습에서 모범을 보이였으며 학생과학연구소조활동에서 성과를 이룩한 87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생과학탐구상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 김성국, 함흥수리동력대학 학생 리지향, 김형직사범대학 학생 백혁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최첨단을 돌파하여 세계를 앞서나갈 담대한 배짱과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열심히 배워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강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억세게 준비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흠잡을데 없이 완벽한 조선학생들의 공연

우리 학생들 국제청소년예술축전에서 최우수상과 1등상 쟁취

【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학생들이 제25차 국제청소년예술축전 《2015년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의 새로운 이름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시에서 진행된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일본,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300여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에 참가한 모란봉제1중학교의 학생들은 어머니당의 숭고한 후대사랑에 떠받들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하에서 마음껏 꽃피운 예술적재능을 다채로운 예술종목들과 미술작품들에 담아 감명깊게 보여줌으로써 축전참가자들과 수많은 관중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선군조선의 새 세대로 자라나는 명랑하고 행복에 넘친 모습을 높은 예술적기량에 담아 공연무대에 펼칠 때마다 관람석에서는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나오고 환호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이번 축전에서 김금송학생에게 최우수상이, 리국향, 김철미, 심철경, 홍룡학생에게 각각 1등상이, 김현숙교원에게 교육자상이 수여되였다.

로씨야 하바롭스크시장은 로조친선의 해인 올해에 조선의 뛰여난 재간둥이들이 축전에 참가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가의 훌륭한 교육정책에 의해 자기의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의심할바없이 축전의 최고상을 받을것이라고 믿었다.

조선의 앞날의 예술은 이러한 재간둥이들이 있어 더없이 창창할것이다.

로씨야국제자선기금 《노비예 이메나》 원동지부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학생들의 흠잡을데 없이 완벽한 공연은 이번 축전을 훌륭히 장식하였다.

특히 김금송학생의 장고독주와 김철미학생의 민족무용은 축전무대를 들었다놓으며 관중들을 완전히 매혹시켰다.

능숙한 연주와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운 률동을 보면서 조선의 높은 예술교육수준을 엿볼수 있었다.

김금송학생이 받은 최우수상은 축전참가자들과 하바롭스크시민들이 보내는 열렬한 축하의 인사이다.

뛰여난 예술적기량을 소유한 조선의 학생들이 앞으로도 전통적인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친선의 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한 연회 진행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하여 싸이에드 하싼 하비브 주조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5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룡남대외경제상, 박근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였다.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맘눈 후쎄인 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웰남에 가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 출발

웰남에서 진행되는 국제의회동맹 제132차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최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26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웰남사회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저도 전쟁로병의 아들입니다》

지난해 11월 피현군 룡계리에서 사는 전쟁로병인 리태화녀성은 봉화화학공장에서 일을 보고 공장을 나서기 전에 걸음을 멈추었다. 전쟁로병인 남편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공장이였다. 한동안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고나서 그가 걸음을 옮기려고 할 때였다. 뜻밖에도 《어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굴을 돌리니 낯모를 사람이 자기에게로 달려오고있었다. 영문을 몰라하자 그는 공장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최용련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다음 공장의 책임일군들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건강은 어떤가고 다정히 물었다.

친아들의 심정으로 살림살이 형편을 일일이 묻고난 그는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리태화녀성의 집으로 최용련동무와 그의 안해인 장희영동무가 찾아왔다. 최용련동무는 리태화녀성에게 여러가지 약재들을 내놓으며 말하였다.

《어머니, 전번에 보니 몹시 수척해졌더군요. 어머니와 같은 전쟁로병들이 건강한 몸으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고맙네.》

이렇게 말하는 리태화녀성의 목소리는 저으기 떨리였다. 그후에도 최용련동무는 안해와 함께 약재와 여러가지 식료품을 안고 리태화녀성의 집을 자주 찾았다.

지난 1월 양력설을 맞으며 최용련동무는 안해와 함께 텔레비죤수상기를 안고 리태화녀성의 집으로 들어섰다.

너무도 뜻밖의 일에 리태화녀성은 《일이 바쁠텐데… 나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하고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러는 녀성에게 최용련동무는 말하였다.

《저도 전쟁로병의 아들입니다.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하기 바랍니다.》

본사기자 현경철

남조선괴뢰정보원 간첩들 국내외기자회견에서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의 범죄진상 자백

【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조종밑에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과의 국내외기자회견이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출판보도부문과 총련의 기자들, 외신기자들이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국가안전보위부 일군이 괴뢰간첩들이 감행한 엄중한 반공화국모략행위에 대해 폭로하였다.

그는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던 괴뢰정보원 간첩 김국기, 최춘길놈들을 현행범으로 적발, 체포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놈들은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밑에 가장 비렬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날뛴 극악한 테로분자들이다.

놈들은 《북인권문제》를 꺼들고 《위조화폐제조국》, 《테로지원국》의 모자를 씌워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보려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밖에도 놈들은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조종과 후원밑에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우리 당, 국가, 군사비밀자료들을 수집하였을뿐아니라 부르죠아생활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고 발악하였다.

제반 사실은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이야말로 주권국가들을 전복하는데 이골이 난 국가정치테로의 원흉, 반인권범죄의 왕초이며 모략의 총본산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는 무리들은 그가 조직자이건 가담자이건 목인한자이건 또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모두 우리 국가안전보위기관의 조준경안에 들어있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이 기회에 사상적으로 썩고 변질되여 배신과 변절의 길에 굴러떨어진자들, 몇푼의 돈때문에 간첩질을 하고있는 외국국적자들에게도 준엄한 심판을 내릴것이라는것을 경고한다.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하는 우리 국가안전보위기관은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감히 어째보려는 놈들에게 조국과 혁명,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선언한다.

세계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 추종자들의 어리석은 망동이 선군조선의 위력, 백두산칼바람앞에 어떻게 풍지박산나며 국가정치테로의 음모가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먼저 지난 10여년간 중국 단동에서 괴뢰정보원의 잠복간첩으로 책동한 김국기가 자기의 죄행에 대해 진술하였다.

나는 1954년 7월 23일 남조선 대전시 동구 룡운동에서 출생하였다.

나는 2003년 9월 1일부터 중국 단동시에 거주하여 지하교회를 운영하였으며 그후 거주지를 여러번 옮기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동시에서 살았다.

나는 지하교회에서 수십명의 조선족과 사사려행자들을 상대로 반공화국종교선전을 하다가 2005년 9월 《국정원》 첩자이며 반공화국종교단체를 조직운영하던 김만조목사의 소개로 서울시 서초구 량재동에 있는 호텔에서 《순복음교회》 집사로 위장한 황재영을 만나게 되였다.

황재영은 조중국경지역에서 자기의 첩보망을 여러곳에 확보하고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을 전문으로 벌려온 《국정원》 부장이다.

그때부터 나는 황재영에게 매수되여 그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게 되였으며 그 다음해인 2006년 7월 20일 《국정원》에 《신성국》이라는 첩자대호와 《101번》이라는 번호로 등록되여 직업적인 간첩으로 활동하게 되였다.

내가 저지른 범죄행위는 첫째로, 북의 최고지도부와 관련한 중대국가비밀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정원》에 제공함으로써 미국과 남쪽당국의 북에 대한 국가정치테로에 적극 가담한것이다.

2006년 7월 《국정원》의 첩자로 등록된 후 내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첫 지령이 바로 북최고지도부의 움직임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제공하라는것이였다.

이러한 지령에 따라 2009년 11월에는 북최고지도부의 중국방문시 통과한 어느 한 간이역과 그 주변을 찍은 사진, 건강상태와 관련한 중대비밀자료들을 수집, 제공하였다.

2010년 4월 28일경 황재영의 긴급호출을 받고 단동에 있는 안씨와 함께 서울에 나가 그를 만났다.

황재영과의 대화를 통해 안씨가 《국정원》과 이미전부터 련결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고 그 이후에 첩자대호가 《김과장》이며 등록번호는 《100번》이라는것, 《국정원》내부에서도 《고급첩보원》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때 황재영이는 나와 안씨에게 북최고지도부의 중국방문관련 비밀을 수집하라는 지령과 각각 3 000US$의 활동비, 련락용은어가 기록된 손전화기를 주었다.

그러면서 이번 지령은 《국정원》뿐아니라 미국에서도 크게 기대를 걸고있다는것, 이번 일을 잘하면 거액을 받고 최고의 실적을 올리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5월 2일 안씨가 이미전에 매수한 현지인물들로부터 수집한 북최고지도부의 5월 중국방문날자와 경로, 렬차시간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황재영에게 제공하고 안씨는 5만US$, 나는 2만US$를 받았다.

또한 그해 8월 북최고지도부가 철도로 중국을 방문할수 있다는 지령을 받고 안씨와 함께 국경지역에 가서 중국측의 철도공사정형과 북측철길주변을 촬영한 후 5월과 같은 방법으로 북최고지도부의 8월 중국방문날자와 렬차시간, 출발 및 도착역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안씨는 5만US$, 나는 3만US$를 받았다.

내가 《국정원》의 지령을 받고 10여년간 집요하게 벌린 북최고지도부와 관련한 자료수집활동은 국가정치테로행위로서 가장 엄중한 범죄라는것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북에 정식으로 사죄한다.

내가 저지른 죄행은 둘째로, 단동지역에 첩보망을 구축하고 북의 당, 국가, 군사비밀과 내부실태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하여 미국과 남쪽당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에 적극 추종한것이다.

나는 반공화국종교단체들에서 종교교육을 받고있는 조선족, 화교, 북의 사사려행자들과 많이 접촉하면서 동향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식당 등에 데리고다니며 가정형편을 파악하면서 쓸모있는가를 확인하였다.

그다음 선정한자들에 대한 《포섭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정원》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정보제공자를 흡수하였다.

《포섭계획서》를 제출하면 나의 담당관인 황재영이가 선정된 사람들중에서 쓸모가 있다고 하는자들을 서울에 데려다 만났으며 그가 현지에 와서 확인해보고 승인해주었다.

내가 처음으로 흡수한 대상은 2006년 8월 중국에 사사려행을 온 화교 주씨였다.

나는 그에게 세집을 임대하여주고 생활용품도 준비해주었으며 공화국의 불미스러운 장면들을 촬영해오라고 하면서 사진기와 중국돈, SD카드, 전화기를 사주고 사진기사용과 촬영법을 배워주었으며 SD카드는 반드시 내용을 모두 지우고 가져오라고 임무를 주었다.

또한 2006년 10월 《동강기독교교육장》에서 평양시 대성구역에 살고있는 허씨를 만나 그가 장애자이지만 콤퓨터와 사진촬영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것을 알고 그를 흡수하였다.

나는 2007년 9월 황재영의 지령에 따라 내가 흡수한 주씨와 허씨를 데리고 대련시로 가서 그들이 따로따로 황재영에게 최종검토를 받도록 하고 정탐임무와 공작비를 받는 장면을 촬영해주었으며 2012년에는 3차에 걸쳐 현지인 오씨를 데리고 서울로 나가 황재영에게 수집한 중대비밀자료와 휴대용콤퓨터를 넘겨주고 정탐임무와 공작비, 기재들을 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나는 현지인들과 북의 사사려행자, 화교 10여명을 첩자로 흡수하여 첩보망을 구축한 다음 《국정원》의 지령대로 첩자들에게 자료수집임무와 정탐기재를 주고 자료건당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주요 비밀들을 수집하여 《국정원》에 체계적으로 제공하였다.

내가 수집하여 《국정원》에 제공한 자료들은 공화국의 주요 간부들의 동향과 경력, 각 기관책임자들과 조직체계, 군부동향과 군간부교체, 군사기지, 핵과 관련한 자료, 현지에 있는 북대표부 성원들과 출장자들에 대한 포섭, 물가변동자료, 불미스러운 동영상자료들과 사진 등이였다.

셋째로, 북을 내부로부터 와해전복시킬 목적으로 북에 대한 모략선전물을 제작, 류포하고 종교선전을 한것이다.

모략선전물들은 북최고지도부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만화책과 오락CD, SD카드, 북에서 반정부적소요가 일어나고있는듯이 날조한 삐라, 인권이 없는 나라는 전세계에 공화국뿐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 등이 들어있는 동영상을 비롯하여 수십가지이다.

이러한 모략선전물들은 북최고지도부를 모독하는 만화책과 같이 《국정원》이 직접 제작한것도 있고 내가 콤퓨터로 합성제작한것도 있다.

언제인가 나는 황재영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중국지역의 첩자들에게 반공화국모략CD 5만장을 배포했다.》고 자랑삼아 하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이러한 모략자료들은 완전히 날조된것이다. 그 대표적인것이 북에서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있다는 미국과 남쪽당국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선전이다.

내가 《국정원》의 지령에 따라 류포시킨 동영상들중에는 북의 보위부처럼 꾸민 방안에서 《보위원》으로 가장한자들이 《탈북자》들을 몽둥이로 야만적으로 고문하는 동영상도 있다.

날조된 이 동영상은 미국의 소위 《인권》단체들과 《국정원》의 배후조종과 지원밑에 만들어진것인데 지금 인터네트를 통해 세계각국에 퍼져있다.

이외에도 나는 황재영으로부터 북의 인권을 날조한 수많은 동영상물을 받아가지고 보관하고있으면서 수시로 첩자들에게 주어 북에 전파하도록 하였다.

한가지만 더 실례를 들겠다.

미국 하와이열방대학에 《미디어단》이라고 하는것이 있는데 이 단체는 정기적으로 동북3성지역을 순회하면서 북의 내부자료를 수집하여 모략선전물을 제작하고 류포하는 전문적인 반공화국인권모략단체이다.

2007년 6월-7월 나는 지령에 따라 이 《미디어단》의 단동려행을 안내하면서 그들과 함께 종교선전물을 만들고 현지에 있는 첩자를 북주민으로 위장시켜 성경을 외우는것을 록음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제작한 모략자료들이 들어있는 MP4 수백개를 받아 공화국에 투입하였다.

미국과 남쪽당국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공화국의 《인권》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드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날조이고 모략이라는것을 나의 범죄활동을 통해 당당히 증언할수 있다.

미국과 《국정원》이 벌리는 반공화국모략선전에서 특징은 종교와 종교단체를 리용하여 북주민들에게 신앙심을 심어주어 북의 일심단결을 파괴하려는것이다.

이런데로부터 《국정원》은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여 종교인들과 종교단체들을 반공화국모략선전에 리용하고있다.

2005년 4월-2006년 7월 기간 나는 공화국에 《종교국가》를 세울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반공화국종교단체의 운영에 관계한적이 있다.

이 단체는 《국정원》 첩자 김만조목사가 주동이 되여 사람들을 끌어다 종교교육을 주입시키는 지하종교단체이다. 이 단체는 비밀리에 운영하는 종교교육장소를 만들어놓고 《공화국에 가서 지하교회를 세우며 기독교를 설교하라.》고 하면서 반공화국선전활동을 하고있다.

이밖에 《하와이열방선교회》, 《부산망미교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반공화국모략선전에 적극 가담하고있다.

이외에도 내가 범한 범죄는 2010년 3월 《국정원》으로부터 《특별지령》을 받고 북화폐를 위조하여 북의 경제를 악화시키고 민심을 혼란시키려 한것이다.

내가 지난 10여년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반공화국범죄행위에 리용하거나 투입한 정탐기재와 장비, 불순전자매체들은 25종에 500여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정보수집비, 정탐기재 및 장비구입비 등 거액의 돈을 받아 정탐모략행위에 사용하였다.

내가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을수 없는 특대형범죄라는것을 인정하며 북주민들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어 김국기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자: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의 안전에 위험을 조성하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기 위해 악랄하게 감행한 괴뢰정보원 간첩 김국기의 특대형범죄행위에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당신이 어떻게 되여 미국과 괴뢰정보원에 흡수되여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하게 되였는지 말해달라.

김국기: 나는 원래 어려서부터 공화국은 우리의 적대국이라는 반공교육과 승공교육을 받아왔다.

중국 단동에서 선교사로 공화국을 반대하는 종교활동을 한것도 나의 의식속에 이러한 반공의식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중국 단동에서 지하교회를 운영하고있을 때 《국정원》 첩자이며 반공화국종교단체를 운영하던 김만조의 소개로 2005년 9월 서울에 나가 황재영을 만나 그에게서 선교하는데 쓰라고 주는 돈도 받았다.

그후 황재영은 나에게 수시로 공화국의 실태자료를 요구하였으며 나는 자료를 수집하여 보낸 대가로 여러차례에 걸쳐 《포상금》을 받았다.

나는 2005년 12월말 서울에서 황재영을 만나 그가 주는 각종 생활필수품들이 들어있는 지함 10개와 2 000US$를 받았다.

이렇게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에 나를 깊숙이 끌어들인 황재영은 2006년 7월 20일 서울에 나를 불러다놓고 그동안 자기가 준 돈은 《북정보수집활동비》이므로 령수증에 수표하라고 하고 서약서를 쓸것을 강요하였다.

나는 서약서에 《국정원》과 《대북》사업을 할것을 서약하고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것과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본인에게 따르는 법적책임을 모두 질것이라는 내용을 쓰고 수표를 하였다.

7월 22일 황재영과 함께 온 차정원이라는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인터네트를 통한 지령과 비밀통신련락방법, 정보수집자포섭, 자료수집과 관련한 원칙, 방법, 주의사항, 공작비보장문제 등 첩보교육을 받았으며 저녁에는 그들과 함께 온 《부사장》(《국정원》 부원장)을 따라 서울시교외에서 식사를 하고 《부사장》으로부터 5 000US$, 황재영으로부터 2 000US$를 받았다.

그때부터 《국정원》의 고정간첩이 되였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지령에 따라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들을 감행하였다.

로동신문사 기자: 당신이 활동하던 단동지역의 반공화국정탐모략거점들과 관계인물들에 대해 말해달라.

김국기: 먼저 단동지역에 있는 《국정원》의 반공화국정탐모략거점들에 대해 말하겠다.

《국정원》 거점들은 단동지역에만도 거의 30개정도가 있는데 상점으로서는 《동방상점》, 《꼬마식품》, 《명성식품》, 《혜성식품》, 《룡천상점》, 《성은상점》, 《명가식품》, 《우리식품점》, 《애니콜》, 《예태상품전문점》, 《가나안식품전문점》, 《LG벽지상점》 12개이다. 그리고 식당은 12개인데 《형화원》, 《민속촌》, 《동해관》, 《기니식당》, 《락원떡집》, 《김밥천국》, 《마마삼계탕》, 《전과복》, 《콩비지두부전문식당》, 《김가네식당》, 《장백산식당》, 《비전식당》이다.

또한 무역관련기업으로서는 《대화무역》과 《동방무역》이고 병원은 《단동샘병원》(《기독교병원》)이며 호텔은 《프리마호텔》, 《강변호텔》이다.

이어 김국기는 단동시에 거주하고있거나 자주 드나들며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에 관계하고 있는 인물들의 이름과 나이, 국적, 직업, 거주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였다.

통일신보사 기자: 당신이 공화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혼란시킬 목적으로 우리 화폐를 위조하여 공화국경내에 들이미는 비렬한 놀음을 벌린데 대해 말해달라.

김국기: 나는 2010년 3월 10일경 《국정원》의 황재영으로부터 공화국의 새 화폐견본을 만들어보내라는 특별지령을 받았다.

나는 남조선에 있는 조승호에게 최신화상입력기 1대를 구입해보내라고 부탁하고 시작한지 47일만에 50원권견본을 비슷하게 만들어냈다.

위조화폐를 완성한 다음 4월말 서울에 가서 황재영에게 넘겨주었다.

황재영은 다음날 나에게 돈과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보장해주겠으니 위조화폐를 더 만들라고 하면서 선불로 2만US$를 주었으며 후에 3만US$를 더 주겠다고 하였다.

2010년 5월 《국정원》의 지령대로 나는 위조화폐를 찍을때 소음이 생기기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없는 아빠트를 임대하여 비밀인쇄기지로 꾸렸다.

나는 완성된 위조화폐를 《국정원》에 보내고 2~3일간격으로 다시 지령을 받으며 작업을 계속하였다.

2010년 9월에 나는 5원부터 500원권까지의 위조화폐를 각각 100매씩 인쇄하여 3개의 가방에 나누어넣고 《국정원》의 지령대로 심양에 있는 짐보관함을 통해 다른 첩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공화국경내에 투입하였다.

그후에도 수천매의 위조화폐를 인쇄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차에 걸쳐 넘겨주었다.

지금도 《국정원》은 일정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 공화국의 화폐를 위조하는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고있다.

2010년 10월경에 나는 단동에 있는 황병만을 만났는데 그는 《국정원》에서 동북3성의 여러 지역에 특별히 조직한 단체들에 화폐위조기술을 배워주고있다고 하였으며 그가 자기집에서 직접 위조화폐를 제조하는것도 보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끝나자 김국기는 자기의 범죄행위가 미국과 《국정원》의 지령과 조종, 후원밑에 북의 최고지도부에 위험을 조성하고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감행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음모적인 국가정치테로, 전복행위라고 하면서 미국과 남쪽당국이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을 당장 철회할것과 세계의 공정한 언론이 이에 적극 호응해줄것을 요청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범죄진상이 세상에 공개되면 남조선의 《국정원》은 발뺌을 할것이며 특히 자기를 흡수하여 간첩으로 만들고 항시적으로 지령을 주면서 조종해온 황재영은 제 살구멍을 찾기 위해 모든것을 부정하며 철면피하게 나올것이라고 하였다.

현지첩자들의 정보수집활동비, 《포상금》, 퇴직금을 절취하면서 검은돈을 챙기는 등 파렴치한 일들을 거리낌없이 하였으며 거짓자료를 만들어 상부에 허위보고하고 그 대가도 중도에서 잘라먹을뿐아니라 정보자료를 팔아먹는 협잡군, 수전노인 황재영이와 같은 추악한 놈들이 《국정원》에 틀고앉아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는 한 북남관계는 개선될수 없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단동에서 살면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하던 괴뢰정보원 간첩 최춘길이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나는 1959년 9월 19일 남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서 출생하였다.

나는 2003년에 남쪽을 떠나 중국에서 살다가 2011년 5월경 심양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던 남쪽사람들인 전종구, 오준헌을 통해 《국정원》 요원 《김과장》을 소개받았다.

그해 7월부터 《김과장》의 첩자로 흡수되여 《고선생》이라는 대호와 함께 공작금으로 매달 중국돈 5 000 RMB. Y(웬)씩 받았다.

또한 골동장사군으로 위장하고 중국에 드나드는 《국정원》 요원인 박성화, 단동에서 목사로 활동하는 《국정원》 관계자 김용하, 장사군으로 위장하고 중국에 오군 하는 《국정원》 관계자 오명균과의 련계밑에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제도를 붕괴시킬 목적으로 공화국공민과 화교들을 포섭, 리용하여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러던중 지난해 12월 30일 공화국경내에 불법침입하여 귀금속을 중국으로 빼내려다가 현장에서 북국경경비대에 단속, 체포되였다.

먼저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탐행위를 한데 대해 말하겠다.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기간에 《국정원》 요원인 《김과장》은 내가 북과 린접한 단동에서 생활하는것만큼 북과 관련한 정보는 사소한것이라도 놓치지 말라, 특히 공화국 최고지도부의 움직임과 관련한 정보수집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하였다.

2014년 5월경에 《국정원》 관계자 오명균도 나에게 공화국 최고지도부와 관련된 자료들을 최우선적으로 수집, 보고하라고 하였다.

이 지령을 집행하기 위해 내가 포섭, 리용하던 북주민들과 화교를 선정하고 돈을 미끼로 포섭하여 알아내려 하였으나 끝내 실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공화국의 군사비밀자료들을 수집할데 대한 지령을 받고 2012년 3월 북주민 리모를 통해 라디움견본과 그해 7월에는 화교 김모로부터 국방분야에서 쓰이는 중요원소알갱이들을 넣은 2중유리병을 사진찍어 보내주었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사이에는 녕변지구의 흙을 파올데 대한 지령을 받고 3명의 북주민들에게 과업을 주었다.

특히 화교 윤모를 녕변에 수차에 걸쳐 파견하였으며 그에게 공화국의 군수공장과 공장책임일군들의 자료들을 수집하게 하였고 비행기격납고, 비행장, 신형땅크들을 촬영하라고 하였다.

내가 《국정원》 요원 박성화로부터 알게 된 《꽃돼지사업》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겠다.

2012년 10월경 박성화는 중국 단동시에 있는 어느 한 식당에서 나에게 《꽃돼지사업》에 대해 아는가고 물어보는것이였다.

내가 모른다고 하니 남쪽의 공수부대, 특공부대들이 공화국에 침투할 때 입을 인민군복장을 비롯한 일체 군품들을 구입하는 사업이라는것이였다.

현재 북에서 군인들의 군복과 철갑모를 비롯한 일부 군품들이 갱신되였다는 정보가 입수되였으니 그것을 구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공화국공민 2명과 화교 1명을 통해 구입한 인민군군관복과 하사관복 각각 한벌, 군인신분증 1개를 박성화에게 넘겨주고 중국돈 2만RMB. Y(웬)을 받았다.

또한 《국정원》 요원 《김과장》과 박성화, 《국정원》 관계자들인 오명균, 김용하로부터 북의 내부실상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데 대한 지령을 받고 2011년 겨울 북주민 리모와 화교 윤모를 통해 공화국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동향, 시장실태, 생활자료를 수집하여 《국정원》 요원 《김과장》에게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나는 공화국을 모해하는 모략행위를 감행하였다.

나는 2012년 5월경 《국정원》 요원 《김과장》으로부터 북을 국제무대에서 《위조화폐제조국》으로 몰아가기 위해 북에서 만든것이라고 증명할수 있는 위조딸라를 수집해보내라는 지령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말경에 《김과장》은 나에게 《대선》이 림박했는데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려면 충격적인 《대북사건》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면서 《최명학간첩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는데 필요한 증거들을 시급히 만들어보내라는 지령을 주었다.

나는 《탈북자》 최명학이라는 사람이 북보위부에서 파견한 《공작원》이라는 자료를 날조하여 보내주었다.

뿐만아니라 반공화국 《인권》 모략선전에 써먹을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공화국공민 1명, 화교 1명에게 북에서 《지하교회》가 운영된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오라고 하면서 만일 공화국에서 찍기 힘들면 중국에서 찍어도 되는데 공화국이라는것이 꼭 알리게 조작촬영해야 한다고 강조해주면서 촬영기재와 함께 각각 중국돈 3 000 RMB. Y(웬)씩 주었으며 찍어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였다.

나는 공화국내부를 와해시키고 북주민들을 유인하여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나는 2012년 3월경 화교 윤모가 공화국에 들어갈 때 성록화물들과 남쪽영화들이 수록된 CD 50여장, USB기억기 2개를 주어 공화국경내에서 복사, 류포시키게 하였다.

또한 언제인가 중국에 나온 사사려행자 안모를 알게 되였는데 돈과 물건으로 그의 환심을 산 다음 그가 귀국할 때 USB기억기에 종교선전물, 성록화물들을 복사해서 주어보냈다.

이밖에도 단동에 사사려행온 북주민 2명과 화교 3명을 남쪽목사 김교수와 중국 룡정에 있는 조선족 집사녀성에게 보내여 종교교육을 받게 한 다음 공화국에 《지하교회》를 꾸리라는 과업을 주어 들여보냈다.

그리고 나는 2011년 6월경 심양에서 일하던 북녀성을 《국정원》 요원 박성화에게 넘겨주어 남쪽으로 유인해가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국정원》의 지령을 받고 2013년까지 5차에 걸쳐 북주민을 남자 9명, 녀자 13명, 어린이 6명씩이나 남쪽으로 빼돌리는 행위를 저질렀다.

내가 직접 운남성 곤명까지 가서 북주민들을 국경밖으로 넘겨준적도 있었다.

심지어 《국정원》의 돈을 받고 화교들까지 공화국주민으로 둔갑시켜 남쪽으로 보냈다가 화교라는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북을 반대하여 저지른 모든 행위들은 공화국에서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는 범죄들로서 그에 대해 천백번 깊이 사죄하며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들이겠다.

이어 최춘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들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당신이 괴뢰정보원 요원 《김과장》에게 북에서 구입한것이라고 하면서 위조딸라를 보내주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최춘길: 사실 북에서 《제조》하였다고 하는 위조딸라를 수집하라는 지령은 《국정원》의 《김과장》뿐아니라 요원인 박성화도 수차에 걸쳐 나에게 주었다.

나는 북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위조딸라를 얻어보려고 3명의 북주민들과 2명의 화교들에게 과업을 주었으나 얻어오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가 직접 단동에서 얻어 마치 북에서 얻은것처럼 꾸며 보내줄 결심을 하고 2012년 7월경 단동시에서 암거래를 하는 한족남자에게 진짜 100US$화폐와 위조한 100US$화폐를 맞바꾼 다음 단동과 인천사이를 오가는 배에서 일하는 짐군을 통해 《김과장》에게 보내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북에서 만든 진짜 위조딸라가 맞다고 좋아하면서 다음번에는 한장짜리 위조딸라가 아니라 큰 종이에 4장이나 8장으로 인쇄된 위조딸라나 그 원판을 수집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런것은 어디에서도 구할수 없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북을 《마약제조국》, 《위조화폐제조국》으로 몰아가려는 미국과 남쪽당국의 모략극이 얼마나 비렬하고 악랄한가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총련 조선신보사 기자: 당신이 날조하여 《국정원》에 제공한 《최명학간첩사건》 조작경위에 대해 말해달라.

최춘길: 2012년 10월경 《국정원》 요원 《김과장》은 최명학이라는 《탈북자》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그가 《위장탈북》한 북보위부의 《공작원》이라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시급히 꾸며 보내라는 지시를 주었다.

그러면서 이 일만 성사시키면 단동에서 돈걱정 안하고 살아갈수 있게 큰 가게를 차려주며 딸애를 류학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나는 최명학이 남쪽에 침투하여 《탈북자》들의 상황을 보고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는것, 그후 최명학이 중국에 드나들면서 북보위원과 비밀접촉하여 공작자료와 임무가 입력된 USB기억기를 주고받군 하였다는것, 최명학이 중국밀선을 타고 몰래 신의주로 넘어가 북보위원과 자기 동생을 여러차례 만났고 그로부터는 마약까지 받아오군 하였다는 식으로 자료를 날조하였다.

그리고 사건의 신빙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최명학이 신의주에 드나들 때 리용한 밀수배군의 사진을 비롯한 《증거물》들도 꾸며냈다.

그러나 《김과장》은 가게를 차려주는 문제는 물론 딸애의 류학도 《국정원》에서 아직 결제가 되지 않았다고 나를 계속 얼려넘기며 끝내 해주지 않았다.

겸해서 《리만준충성맹세서》라는것을 날조한데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해 11월 《국정원》 요원 《김과장》은 《최명학간첩사건》 하나만 가지고서는 좀 약하다고 하면서 단동에 상주하고 있는 남쪽사람들가운데서 한명을 골라 그가 북과 련결되여있다는 식으로 사건을 하나 더 꾸며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평소 알고지내던 리만준에게 공화국에 충성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고 꼬여냈다.

그후 리만준으로부터 전자우편으로 《충성맹세서》를 받고 그것을 즉시 《김과장》에게 보내주었더니 자필로 써서 다시 보내라고 하여 그렇게 해주었다.

이와 같이 《국정원》놈들은 지금 이 시각도 리만준과 같은 무고한 남쪽사람들까지 제물로 바쳐가면서 동족대결행위에 매달리고있다.

이제 더이상 《국정원》은 이따위 너절하고 비렬한 모략행위를 벌리지 말아야 하며 《국정원》은 당장 해체되여야 할것이다.

기자들의 질문이 끝나자 최춘길은 같은 민족이지만 동족을 대하는데 있어서 남과 북, 북과 남이 너무도 판이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중국 심양에서 5년, 단동에서 7년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공화국공민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들로부터 느낀것은 그 누구도 남쪽에 대해 모략을 꾸미거나 나쁜짓을 하지 않았고 더우기 나쁜 말도 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에 나와있는 많은 남쪽사람들은 북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악의에 찬 비방중상과 심지어 북을 반대하는 대결모략행위를 하고있다.

이것은 남쪽 《정부》가 그들에게 동족대결의식을 불어넣고 반공화국적대행위에 끌어들이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행위에 가담해야 종당에 얻을것이란 나와 같은 운명뿐이며 미국과 남쪽당국이 추구하는 북의 《변화》와 《붕괴》란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끝으로 최춘길은 지금 이 시각에도 중국에는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하고있는자들이 적지 않은데 그들은 저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질없는짓인가 하는것을 똑바로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적발체포된 괴뢰《국정원》 간첩들의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를 보여주는 사진자료들과 증인들의 진술을 수록한 편집물이 상영되였다.

남조선괴뢰정보원 간첩들 국내외기자회견에서 반공화국정탐모략행위의 범죄진상 자백 (김국기, 최춘길)

조 선 중 앙 통 신 사 보 도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한 미국의 특대형범죄행위는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남조선에서 《천안》호침몰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되였다.

지금도 《천안》호사건이 철두철미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조작한 사상초유의 특대형모략극이라는것이 낱낱이 드러나고있으며 사건의 진범인들을 국제법정에 내세워 준엄한 철추를 내릴것을 요구하는 정의의 목소리가 세계적규모에서 날로 높아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미국이 감행한 《천안》호침몰사건의 범죄적진상과 그것을 기화로 더욱 로골화되는 반공화국도발책동의 엄중성을 만천하에 폭로단죄한다.

1

《천안》호사건은 미국이 백악관의 지령에 따라 조선서해상에서 침몰된 미군잠수함을 구출하기 위해 조작한 특대형모략극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2010년 3월 26일 밤 조선서해 열점수역에서 괴뢰해군함선 《천안》호가 원인모르게 두동강이 나 침몰하였다.

침몰수역으로 말하면 괴뢰패당이 늘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2중3중의 겹겹한 탐지감시체계를 가동하고있는 곳이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대함 및 대잠작전과 대공사격, 해상차단작전 등이 벌어지고 각종 함선집단들과 수중, 공중정찰수단들이 분주히 돌아치고있었다.

이런 정황속에서 이 수역에서 미군잠수함이 침몰되여 그것을 빼내는것이 미국에 있어서 급선무의 하나였다.

미국이 그 작전을 실현하기 위해 연출해낸 조작극이 바로 《천안》호침몰사건이다.

사건발생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수많은 언론들과 분석가들, 군사전문가들이 그것을 확증하는 증거자료들을 제기하고있으며 그 신빙성은 날이 갈수록 보다 뚜렷해지고있다.

인도네시아신문 《꼼빠스》 2010년 6월 1일부는 《천안》호침몰원인은 수수께끼라고 하면서 《미군잠수함에 의한 침몰가능성이 제기되고있다. 사고당일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한 미핵잠수함이 백령도와 가까운 수역에서 비밀전투임무수행중이였다는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하였다.

남조선 《KBS》방송은 4월 7일 미국과 남조선이 《천안》호침몰장소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미군잠수함이 침몰한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목적은 미군잠수함들이 오래전부터 유사시 《북을 기습》하기 위해 백령도주변에 주둔하고있다는 사실이 폭로되는것이 두렵고 남조선에서 반미감정이 분출될것을 우려해서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미군철수운동본부는 4월 17일 《〈천안〉호사건의 가해용의자는 미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외부충격의 가해자로 유력하게 떠오르는 용의자는 미군잠수함이다.

주〈한〉미국대사와 미군사령관이 함께 황급히 사고해역을 돌아본 극히 이례적인 일, 미군잠수부들이 〈천안〉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3의 지점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수색하고있었다는 점 등이 이런 혐의를 짙게 하고있다. 〈범죄자는 반드시 범죄현장을 찾는다.〉라는 범죄수사의 법칙을 련상시키는 대목이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론설위원 리흥노는 《미국아 말하라, 〈천안〉호의 진실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제사회의 론점으로 되고있는 제3부표(룡트림바위)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백령도에 있는 룡트림바위밑은 수심이 깊고 천연요새로 알려진 곳이다. 미국은 이곳을 미군잠수함의 근거지로 삼고 북을 감시하며 유사시에는 몇분내에 북을 타격할 만단의 준비를 하고있다 한다. 미군잠수함이 바다밑을 종횡무진 누비며 항해하다가 일본근해에서 일본어선과 충돌한 사건도 있었다 한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미군잠수함에 모종의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을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게 한다. 미잠수함 승무원들속에 희생자가 있었을것이라는것은 미군직승기가 제3부표지점에서 그 무엇인가를 옮기였으며 미대사관에 조기가 걸려있었다는 사실이 뒤받침하고있다.》

11월 12일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남조선잠수부의 죽음과 미국이 어떤 련관이 있는지 밝힐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주호준위의 장례식에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조문을 하였다. 오바마가 리명박에게 전화를 걸어 〈수색작업을 하다 숨진 한준위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고있다.〉고 말하였다는 언론보도는 더욱 이례적인것이다.

한주호준위가 제3부표에서 무엇을 했는지, 미국은 왜 그의 죽음에 대해 이토록 이례적으로 행동했는지 해명하여야 할것이다.

〈천안〉호가 미군잠수함과 충돌했을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있다.》

미국기자 메드센은 미국방송국과의 특별대담에서 《〈천안〉호사건은 미해군 잠수특공대의 자작극이라고 볼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평들은 《천안》호사건을 조작한 미국의 범죄를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이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70년간 한갖 식민지노복에 불과한 괴뢰군사병들의 죽음앞에서 《경의》를 표시한 전례가 단 한번도 없다.

멀리 볼것도 없이 《천안》호사건과 거의 같은 시기에 련이어 발생한 괴뢰륙군사병의 죽음과 괴뢰해공군전투기와 무장직승기들의 추락사고, 민간어선의 침몰사고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미국이였다.

더우기 지난해에 《천안》호사건에 비해 몇배에 달하는 수백명의 어린 학생들이 바다에 통채로 수장된 《세월》호참사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한 미국이 당시 대사관에 조기까지 띄우고 여러날 침묵상태에 들어간것은 결코 저들의 잠수함을 건지다가 숨진 한 장교나 《천안》호의 46명 괴뢰군사병들의 죽음이 슬퍼서가 아니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끊임없는 정탐행위와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다가 조선서해에서 물고기밥이 된 미군잠수함의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한것이였음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

오늘도 여론은 《천안》호가 침몰된 미군잠수함구출을 위한 제물로 되였다는데로 초점이 모아지고있다.

즉 《천안》호는 그 어떤 어뢰공격이나 폭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군잠수함의 의도적인 충돌에 의해 두동강이 났다는것이 세계여론과 과학자들의 주장이다.

함선이 가동을 멈춘 후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응당 조류를 따라 남동쪽으로 내려갔어야 하였지만 오히려 조류를 거슬러 100m가량 북쪽으로 옮겨졌다는것, 인양시 함수우현에만 녹이 쓴것은 그 무엇인가에 끌려 이동하는 과정에 벗겨진것이라는것, 《합동조사단》에 참가하였던 관계자들이 어뢰설계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당시 《북어뢰공격》의 결정적증거라고 했던 흡착물질이 사실은 폭발에 의한것이라는것을 확증하지 못하였다고 고백한 사실, 수중폭발이 없었다는 론문들과 분석보고서들이 련이어 나오고있는것은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상을 부각시키고있다.

2014년 11월 남조선 경성대학교 명예교수 김황수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원 머로 카레스타는 국제학술잡지에 기고한 《무엇이 정말로 〈천안〉호침몰을 일으켰나?》라는 제목의 공동연구론문에서 《천안》호가 길이 113m정도의 잠수함과 충돌하여 침몰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론문에서 침몰당시 백령도에서 기록된 지진파의 주파수스펙트르가 대형잠수함의 고유진동주파수스펙트르와 일치하였다, 군당국이 언론에 공개한 《천안》호의 열상관측장비(TOD)동영상들을 분석한 결과 반파된 함수의 표류속도가 조류속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데다가 200°가까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은 반파된 함수가 자체기동이 가능한 함체에 실려 의도적인 항적에 따라 표류했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2014년 12월 1일 당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는 이 연구론문과 관련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황수교수는 사고당시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그것이 폭발파는 전혀 무관하고 금속충돌시 발생하는 고유진동수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하였다. 그 진동수를 계산해보니 길이 110여m, 폭 5.6m의 금속통이 충돌하였을 때 나는 진동수라는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길이의 잠수함은 미국의 로스안젤스급 아니면 버지니아급이다. 그중 로스안젤스급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운용하는 무기로 수심이 얕은 곳까지 침투할수 있게 개발된 공격형원자력추진잠수함이다. 이 잠수함과 〈천안〉호가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6cm이상의 고강도강철로 제작된 미국잠수함이 1.2cm의 강철 및 알루미니움합금으로 만들어진 〈천안〉호와 충돌하는 경우 별로 피해를 입지 않았을것이다.

〈천안〉호와의 충돌에는 실수라고 볼수 없는 정황들이 너무 많다.

사태수습을 위해 대형기중기 등을 동원하여 작업하여야 하였는데 그 명분을 위해 미국이 〈천안〉호를 두동강 내여 함미는 그 자리에 가라앉히고 함수는 제3부표지점린근까지 끌고 가야 하였을것이다.

그래서 〈천안〉호 함수를 건졌을 때 바로 짐배로 옮기지 않고 굳이 제3부표지점까지 끌고 가서 짐배에 싣는 작업을 했던것이며 그것도 갑자기 그 작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날씨를 리유로 2일간 휴식을 주고 제3부표지점에서 미군 등이 뭔가 바다속에서 계속 건져 올려 미군기지로 바로 수송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진실은 언제인가는 밝혀지는 법이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다면 미국은 자국의 침몰된 잠수함수습을 위해 우리 해군사병들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수장시켜버린 그야말로 인간백정들이라는것을 또다시 증명하는것으로 될것이다.》

남조선각계와 국제사회에서 쏟아져나온 이러한 목소리는 그대로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조작한 《천안》호사건의 진상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만약 미국이 조선동, 서, 남해에 유도탄구축함, 핵동력잠수함, 도크상륙함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함선집단을 투입하여 침략전쟁연습을 벌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항시적으로 가장 첨예한 열점지역인 백령도와 대청도 등 조선서해의 5개섬일대에 핵잠수함을 전개하지 않았더라면 《천안》호사건은 발생하지조차 않았을것이다.

《천안》호침몰사건은 미국이 저들의 불순한 목적달성을 위해 면밀히 타산하고 꾸며낸 의도적이며 강도적인 범죄이다.

여러차례 수리를 받아 다 낡아빠진 《천안》호를 택한것, 사건해명에 불리한 장소와 시간을 정한것 즉 공해가 아닌 령해에서, 수상이 아닌 수중에서, 한낮이 아닌 밤중에, 합동군사연습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시기에 침몰사건을 조작한것은 그 범죄적성격을 명백하게 폭로하고있다.

피델 까스뜨로가 《비극을 눈앞에 두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국의 골치거리는 자기의 동맹자가 믿을만 한 소식통들을 통해 〈천안〉호가 미국에 의해 침몰되였다는것을 알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진상을 가리울수는 없는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때문이다. 초대국이라는 제국에도 그것을 막을 방도는 없다.》라고 강조한것은 이를 보다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이 사건조사에 깊이 개입하여 저들의 추악한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한것은 《천안》호를 침몰시킨 장본인이 저들 자신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한것으로 된다.

사건발생직후 비밀리에 워싱톤을 찾아온 괴뢰패당에게 《대조선제재조치의 철회》를 바라지 않는다는것과 함께 사건조사가 늦어지면 불리해질수 있다는것을 암시하였다.

미국방성과 국무성, 중앙정보국에서 그 무슨 대책회의가 뻔질나게 벌어졌으며 비공개적으로 대응책을 모의하였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4월 1일 괴뢰역도와의 전화대화에서 사건조사에 적극 《협력》할것이라고 하였다.

4월 초순 미중앙정보국출신인 미국가정보국 북담당판이 극비로 남조선에 날아들어 괴뢰정보당국자들을 만나 대응방안을 론의하였다.

미국은 사건이 일어난지 열흘만에 사건조사에 참가한다는것을 선언하고 어중이떠중이들을 긁어모아 남조선에 들이밀었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판이 괴뢰국방부에 나타나 《최고수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떠벌이면서 괴뢰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었다.

미국으로부터 사건날조를 위한 인원과 장비들이 남조선에 투입되고 여기에 남조선강점 미군과 미태평양함대의 장비와 병력까지 증강되였다.

미국이 조사의 《객관성》을 부여한다면서 남조선의 민간인들과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합동조사단》을 만들었으나 여기에 들어간 민간인들은 사실 조사에 참가하지도 못하였다.

미국의 지휘조종하에 《조사단》의 구성상태와 조직체계, 성원들의 역할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2010년 6월 5일 서울주재 미국기자는 이에 대해 《조사단성원들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외국인들중 스웨리예사람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지난 조선전쟁시기 남조선에 군대를 보내였던 나라들의 전문가들이다. 그들이 침묵을 지킬데 대한 명령을 받은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하였다.

사건《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이틀전에 미국집권자가 괴뢰역도와 전화대화를 하면서 《천안》호사건대응과 동맹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것이라고 뇌까렸으며 미국무성 차관보는 《미국정부는 조사과정의 모든 부문에 관여하여왔다.》, 《조사결과를 강력히 지지할것》이라고 내놓고 떠들어댔다.

괴뢰들로 하여금 《북어뢰공격》설을 제창한 《조사결과》를 세계앞에 공개하도록 한 미국은 후속대응에서도 주도적역할을 하였다.

5월 20일 미국대통령이 미군에 《북조선위협》을 막을데 대한 명령을 내려 조선반도의 《안보불안》이 극도에 달한듯이 여론을 오도하였으며 백악관은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 25일 미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북은 〈천안〉호공격과 관련한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떠들었고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괴뢰들이 취한 동족대결조치들이 정세에 알맞는 적절한것이라고 줴치였다.

미국이 남조선당국의 《조사결과》발표와 《5.24조치》에 신속반응하는것을 두고 외신들이 이미 《사전교감이 있었기때문》이라고 까밝힌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이 핵잠수함구출을 위해 《천안》호를 침몰시킨것이 범죄의 1막이였다면 사건조사에 깊이 개입한것은 특대형모략행위를 력사의 흑막속에 영원히 덮어버리기 위해 감행한 범죄의 2막이며 기만극이다.

2

미국이 괴뢰패당을 사촉하여 황당무계하고 허황하기 그지없는 《북어뢰공격》설을 날조한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특대형범죄이다.

원래 괴뢰패당은 사건발생초기 1960년대 미국이 백령도의 전파탐지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부설하였던 500~600개의 기뢰등을 념두에 두고 《기뢰에 의한 사고》가능성을 내놓았으며 《내부폭발》설과 《암초충돌》설, 《자연피로파괴》설 등을 들고나왔다. 그리고 공기속을 빠르게 비행하는 총탄과는 달리 물속에서 서서히 접근하는 어뢰의 발동기소리를 음향탐지기들이 감지 못할리 없으며 더우기 사고수역의 수심이 매우 얕기때문에 잠수정의 기동은 어려운 대신 어뢰는 쉽게 탐지될수 있다고 하면서 《어뢰에 의한 사고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가면서 점차 《북관련》이 서서히 그리고 집요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사건발생지점이 뒤바뀌고 초기 《검출된 화약성분》이 세계가 다 리용하는 고성능폭약 RDX이라던것이 《로씨야, 중국, 조선 등에서 사용한다.》는 TNT로 변경되였다.

점차 《북의 직접개입》설로, 공공연한 《북어뢰공격》설로 확대되면서 《천안》호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계시키는 방향으로 이어갔으며 결국 《조사결과》와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였다.

이러한 주장은 즉시 남조선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비난과 조소를 자아냈으며 오늘까지도 그 허황성을 까밝히는 증거자료들이 계속 제기되고있다.

이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가 명백히 밝힌바와 같이 괴뢰들이 《북어뢰》의 핵심증거로 공개한 알루미니움합금조각은 우리 금속공업부문에서 만든 어뢰제작용강철합금편이 아니다.

침몰해역에서 《뜻밖에 수거》한 어뢰추진체가 우리의것이라는것을 실증하기 위해 내놓은 설계도면도 cm단위로 설정한 치수가 실물과 전혀 맞지 않은것이며 도면용어도 남조선표현 등으로 되여있다. 조선동해에서만 서식하는 《붉은 멍게》가 추진체에서 발견되여 그 출처가 문제로 되고있다.

어뢰추진체가 50여일간 한자리에 있었다는것, 또 극소형파편까지 찾아내는 첨단탐지수단을 장비한 미국, 남조선의 수십척에 달하는 함선들이 달라붙어 찾아내지 못한 추진체를 한갖 민간어선이 고기그물로 건져냈다는것은 그대로 세상을 웃기고있다.

결정적증거의 하나로 내놓은 《1번》글체는 론할 여지조차 없는 엉터리조작품이다. 《1번》글체가 폭발에 의한 고열에도 타없어지지 않은것, 침몰된 배의 다른 부유물은 바다염도에 의해 부식되였으나 글자부위만 생생한것, 고열에 견딜수 있는 외부칠감은 타버린 대신 저열에도 타버리는 잉크가 그대로 남아있는것, 글자의 잉크가 남조선에서 많이 쓰이는것, 표기방식이 우리의것이 아닌것 등이 다 그러하다.

짜맞추기로 서툴게 꾸며낸 《1번》글체가 모략가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그 날조의 흑막을 폭로하는 1번이 되고말았다.

현지수역에 대한 우리 잠수함의 《ㄷ자형 침투경로》조작 역시 완전한 모략이였다.

폭침에 의한 물기둥으로 둔갑한 천둥에 의한 섬광, 함선 좌현에서 일어났다는 폭발에도 불구하고 멀쩡한채로 있는 좌현스크류와 지어 선체가 두동강 난 부위에 그대로 설치되여있은 형광등, 과학적부정을 당한 알루미니움흡착물과 자취를 감춘 비공개영상자료 등은 제기한 《조사자료》가 명백한 날조품임을 더욱더 드러내고있다.

이러한 모략품들이 바로 미국에 의해 조작되였다.

미국은 조사에서 처음부터 《북조선외에는 다른 용의자가 거의 없다.》, 《침몰원인이 북조선의 어뢰공격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혐의자》로 락인하고 그에 맞게 사건조사를 유도하였다.

《군사기밀루출》을 구실로 미군과 괴뢰군사이의 교신기록 등 수많은 핵심적인 증거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북어뢰공격》설에 불리한 자료들은 은폐하고 저들의 구미에 맞게 변경시켰다.

미국이 《북어뢰공격》설을 조작한것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한 또 하나의 특대형범죄이다.

미국은 《천안》호사건을 대조선적대시책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렛대로, 주패장으로 도용하고있다.

오바마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검토해온 대조선추가제재방안을 2010년 7월 21일에 선포하였다.

남조선의 극우보수신문인 《조선일보》가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초강경》적이며 남조선외교당국의 예상을 릉가하고있다고 평한것은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9월 16일 미국회 상원은 조선반도안보와 관련한 긴급청문회를 열고 행정부의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론의하였다.

2010년 6월에 있은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때 미국, 일본, 남조선 국방장관들이 3자모의를 열고 대조선정책공조에 대해 모의하였으며 3년후에 그것을 재현하였다.

카나다에서 진행된 8개국수뇌자회의와 20개국그루빠수뇌자회의에서 《천안》호사건에 대한 국제적공조를 구축하여 저들의 대조선압살정책에 편승하도록 지역대국들에 압력을 가하려는 기도를 드러냈으며 사건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상정시켜 우리에 대한 국제적압박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미쳐날뛰였다.

2010년 7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차에 걸쳐 진행된 판문점조미군부대좌급실무접촉에서는 문제해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시간을 끌었으며 《천안》호사건에 대한 《북소행》설을 기정사실화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한편 미국은 《천안》호사건을 남조선과의 침략동맹을 반석같은 초석우에 올려놓기 위한 수단으로 틀어쥐고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미국 남조선동맹관계는 미국과 전세계안보의 기초로 된다고 력설하였으며 남조선에 대한 《북조선의 침공을 억제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것》을 미군사령판들에게 지시하였다.

미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함께 조선전쟁도발 60년이 되는 해에 남조선을 행각하여 동맹관계의 《공고성》을 떠들고 군사분계선일대의 최전방 미군부대와 판문점중앙분리선에까지 나와 돌아치면서 전쟁열을 고취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적망발을 거리낌없이 늘어놓았다.

미국남조선외교, 국방장관회의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천안》호사건에 대한 그 누구의 《책임》을 촉구하였으며 《어떤 추가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것》이라고 주제넘게 경고까지 하였다.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괴뢰들에게 예속의 올가미를 더욱 깊이 씌우고 남조선을 저들의 영구적인 군사병참기지, 핵전쟁전초기지로 전락시키며 북침전쟁수행에 필요한 물적, 인적자원을 현지에서 최대한 깡그리 강탈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언론들이 미국이 《크게 힘을 쓰며 지지해준 덕분》에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축이 《미일동맹》으로부터 《미한동맹》으로 옮겨졌다고 한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이다.

미국남조선동맹강화의 연장선에서 미국대통령과 괴뢰역도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15년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것이 오늘 《유신》의 후예에 의해 무기한 연기되였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며 그 실현을 위한 로골적인 움직임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침략전쟁전략이다. 력대 집권자들이 그 실현을 위해 조선반도를 침략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으며 정세를 끊임없이 긴장시켜왔다.

오바마행정부는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명하고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보다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미국은 괴뢰패당과 함께 일명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우는 미7함대소속 초대형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비롯하여 지난 시기 진행한 합동군사연습들에 비해 10배이상의 무력을 동원하여 대규모적인 련합해상훈련을 감행하였으며 《F-22》최신형전투기와 《B-52》전략핵폭격기를 비롯한 각종 전쟁장비들을 들이밀고있다.

미국이야말로 조선반도에 새 전쟁,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장본인이며 주범이다.

미국은 《천안》호사건을 통하여 남조선을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주요구성부분으로 더욱 확고히 장악하였으며 그 지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조선반도는 미국이 잠재적인 적수로 보는 로씨야와 중국이 잇닿아있으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조선반도가 미국의 침략적대아시아전략실현의 요충지라면 남조선은 직접 발을 디디고있는 군사적발판이다.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을 놓치는것은 대조선전략은 물론 대아시아전략실현의 전초기지를 잃는것으로 된다.

미국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가 보다 긴장격화되고있다.

미싸일방위체계의 핵심요소인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서두르고 전쟁지휘참모부인 미국남조선련합사단참모부를 가동시키고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을 축으로 하는 군사동맹들을 조작하려 하고있으며 《맞춤형억제전략》 등으로 괴뢰들을 새 전쟁도발에로 내몰고있다.

지난 시기 경제적고립과 질식, 심리전, 군사적압박 등 각종 수법을 다 적용하였으나 실패를 면치 못한 미국이 《천안》호사건을 증폭시켜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단행하고 그를 돌파구로 하여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장악하려 하고있다.

중국잡지 《료망》 2011년 제52호는 《태평양지역으로 이전하는 세력중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미국은 이전에 대서양체계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던것처럼 21세기를 이른바 〈미국의 태평양세기〉로 만들려 하고있다.

미국의 〈아시아복귀〉전략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위기를 조성하고 통제가능한 긴장상태를 유지하는것을 통해 이 지역의 동향을 장악통제하는것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실례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천안〉호사건을 일으켜 안보위협을 느끼고있는 〈한국〉과 일본이 또다시 미국에 빌붙게 한것을 들수 있다.》

로씨야신문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는 로씨야해군총참모부 해군대좌의 발언을 인용하여 《〈천안〉호사건은 세계공동체를 속여넘기려는자들의 고안품이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 능숙한 연출가이다. 이라크전쟁을 개시할 때 미국이 어떤 거짓정보로 유엔을 속여넘겼는가 하는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천안〉호사건 역시 미국의 작간이다.》고 주장하였다.

력사를 돌이켜보면 국회의사당방화사건을 조작하고 히틀러가 못된짓을 하였고 로구교사건을 꾸미고 일본이 중국대륙침략의 길에 들어섰으며 바크보만사건을 조작하고 미국이 웰남침략전쟁을 확대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언론들은 물론 미국의 평론가들까지 《천안》호사건을 1964년 8월의 바크보만사건과 대비하고있다.

《천안》호사건은 미국이 21세기의 전략적중심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군사적환경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기 위해 조작한 아시아판 9.11사건이며 사기극이다.

미국이 철면피의 극치를 이루는 특대형모략사건을 조작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에 더욱 광분하는것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는 극악한 범죄이다.

백악관의 정치군사적리익을 위해 저지른 미국의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미국이 감행한 특대형범죄행위는 반드시 결산될것이다.

주체104(2015)년 3월 25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광란적인 합동군사연습으로 임의의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고있는 가운데 남조선에 저들의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 《싸드》를 배비하려는 미국의 책동으로 하여 긴장상태가 더한층 격화되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미싸일《위협》에 대하여 그 어느때보다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남조선에 한사코 《싸드》를 끌어들이려는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서 우리의 강경대응을 유도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체계적으로 악화시키고있는 당면목적의 하나가 바로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강행하려는것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싸드》를 끌어들임으로써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준비를 갖추는것과 함께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에 따라 전략적경쟁자들인 중국과 로씨야를 제압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보려 하고있다.

이 나라들이 미국의 《싸드》배비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반대해나서고있는것이 우연치 않다.

《싸드》의 남조선배비는 아시아판《나토》인 미국, 일본, 남조선 3각군사동맹의 형성과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망구축을 어떻게 하나 완성해보려는 미국의 전략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여기에 굴욕적인 대미추종이 체질화된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나서서 나라의 통일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

미국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동족압살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발광하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은 위험천만한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여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가뜩이나 열점화되고있는 조선반도를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섬겨바치려 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와 주변정세악화의 주범이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 《싸드》가 배비되는 경우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새로운 랭전구도가 형성될것이며 조선반도가 또다시 대국들의 전쟁터로 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될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침략전쟁준비책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릴수록 그에 대응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백배로 더욱 강화될것이다.

주체104(2015)년 3월 26일
평 양

일본이 모욕과 멸시를 받는것은 응당하다

예로부터 손님박대란 말은 있어도 주인박대, 주인하대란 말은 없다. 손님이 주인을 존중심없이 대하는 일은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주인박대, 주인하대란 말이 나올 정도의 보기딱한 일들이 생기군 한다. 최근에 도이췰란드수상 메르켈이 손님으로서 일본을 방문하였다. 일본수상 아베가 그를 초청하였던것이다.

메르켈은 방문 첫날부터 일본을 은근히 비난해나섰다. 아베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전후 도이췰란드의 과거청산노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일본의 야당대표와 만났을 때에는 일본이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군성노예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것이 좋다고 공개적으로 충고해주었다.

메르켈은 또한 일본언론들이 주최한 강연회들에 참가하여 도이췰란드가 자기 주변나라들과 관계개선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력사를 바로 대하는 자세를 보였기때문이라고 거침없이 주장하였다.

메르켈의 비판적인 태도로 하여 아베정권은 매우 옹색한 처지에 빠져들어 몹시 당황해하였다고 한다. 도이췰란드—일본관계문제를 위한 방문인데 이렇게 일본을 곤경에 빠뜨릴바에는 왜 왔는가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이 일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일본은 손님으로부터 무참할 정도의 하대를 받았다. 모욕과 멸시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이 이런 대접을 받는것은 응당하다.

도이췰란드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전범국들이며 그 대전에서 다같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은 패전국들이다. 처지는 꼭같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를 대하는 면에서 두 나라는 완전히 차이난다.

도이췰란드는 과거죄악에 대하여 성근하게 사죄하고 깨끗이 청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오고있다. 이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나치스정권하에서 강제로동에 종사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지불을 전부 끝냈다. 그뿐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의 배상금지불도 여러해전에 완료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극악한 살인만행들을 조직, 지휘, 집행하고 그후 숨어살던 전범자들을 적발하여 응당한 징벌을 안기고있다.

반면에 일본은 과거죄악을 감추려 하고 미화분식하면서 그 청산을 회피하고있다. 일본고등학교 교과서들에는 일제의 성노예범죄와 관련한 내용들이 전부 삭제되였다. 지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안젤스시와 그 부근의 공립고등학교들에서 사용하는 세계사교과서들에 언급된 성노예관련내용이 《력사적사실과 어긋난다.》고 하면서 《명백한 허위》라고 앙탈질까지 하였다. 아베정권은 올해에 일제의 패망 70년을 맞으며 발표하려는 수상담화에서 《무라야마담화》의 《식민지통치》와 《침략》, 《사죄》라는 기본표현들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립장을 밝혔다.

도이췰란드와 일본의 죄많은 과거사에 대한 태도는 이처럼 판이하다. 이로 하여 국제사회가 두 나라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도이췰란드와 주변나라들사이의 관계는 아주 가깝고 친밀하다.

도이췰란드는 유럽의 존중을 받고있으며 지역문제들에서 관건적역할을 하고있다. 이와 대조되게 일본과 그 주변나라들사이의 관계는 랭랭하고 매우 복잡하다. 그 관계에서는 군사적충돌이 일어날수 있는 요소들도 나타나고있다.

일본은 과거죄악에 대한 청산을 똑바로 하지 않는것으로 하여 주변나라들뿐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받고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일본의 죄많은 과거사문제가 세계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문제, 제2차 세계대전의 판결과 관련된 문제이며 나아가서 전쟁방지와 평화보장과 이어진 문제로 된다는것이다.

과거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상전인 미국으로부터도 눈총을 받고있다. 일본이 과거력사를 외곡하며 주변나라들과 복잡성을 조성하는 행위가 자국의 《리익》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있는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며 과거죄악을 바로 처리하라고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있다고 한다.

과거죄악을 바로 청산하지 못하면 일본은 언제 가도 국제사회의 당당한 성원국으로 살아갈수 없다. 차례질것이란 언제나 배척과 모욕, 고립뿐이다.

일본의 미래는 과거력사외곡행위를 중지하고 과거죄악을 청산하는데 있다.

리 경 수

ㄱ-51048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